

남원 지역업체 '해뜰날' 오나

시, 경제활성화 위해 지역업체 보호 총력... 8월부터 관내 생산품 최우선 특혜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인력 등) 등을 우선 사용토록 '남원시 지역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계획'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남원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시 지역 생산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은 물론 자재·장비·인력 사용에 대해 지역 소재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작·준공시에 자재 및 장비·인력 사용계획서와 내역서를

제출 받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불임금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 수주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는 설계에 관내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상감사 및 원가(계약)심사 단계에서도 지역업체 생산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외업체 설계 반영 시에는 사비비 분석과 원가산정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에 활용하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보호

와 지원을 위해 힘쓰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지불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일일금(5만원) 이상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원가심사 부서 간 사전검토 협의와 공사용 자재 및 물품 관련 지역업체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교차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타 지역업체 수주를 근절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살인 무더위에 속타는 농가

임실, 과수 피해 최소화 위해 현장컨설팅 등 안간힘

임실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폭염지속과 가뭄으로 인해 사과 등 방지를 써우지 않는 과원에서 일소(햇빛데임)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과원별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일소피해는 고온에서 강한햇빛에 의해 과일이 데이는 현상으로 기온이 31°C 이상일 때 외부 온도와 과실표면의 온도가 13°C 이상 차이가 날 때 주로 발생되며 해당조치가 동반하고 물러져 과일의 상품성을 잃게 한다.

올해는 40°C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밤온도 또한 높아 과원내의 열을 식힐 시간이 부족하여 예년에 비해 일소피해가 20일정도 일찍 나타났고, 사과와 사과 품종 등 추석용 과일의 경우 착색을 유도하기 위한 잎따기 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자는 일소현상은 햇빛과 고온관리를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수확 시까지는 과원내 적정 수분을 유지하고,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과다한 잎따기 작업과 지나친 하계전정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햇빛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위가 없도록 과돌리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온이 지속될 때는 반사필름 까는 시기를 늦추거나 생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온도가 31°C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압분무기나 SS기를 활용해 나무에 물을 분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탄산칼슘(400~500g/20l)이나 카올린(300~600g/20l)을 2~3회 처리하는 것도 일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폭염이 매우 심할 때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소 피해가 발생한 과원은 겹무늬 씩음병 발생이 일찍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를 입은 과원내에 수용성 전분함량이 높아져 병원균의 활성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소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피해과를 신속히 제거하고 과원 내 소독을 보다 정밀하게 실시해야하며, 이때에도 수확을 앞둔 농가는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군 센터 관계자는 "일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별 농가 방문과 SNS 홍보를 통해 농가 상황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긴급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26일 춘향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64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계속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통학차량 안전관리규정 준수, 폭염대비 야외활동자제, 영유아 보호를 위한 자체 활동방침 운영 등 아동 안전사고 예방과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경 관장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현장 점검 및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한 교육과 함께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폭염에도 계속 되는 이웃사랑 눈길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 취약층 방충망 보수·교체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학성, 박만식)는 주민들이 각종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방충망 보수 및 교체' 사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폭염속에서도 이웃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방충망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이미 14개 가구를 진행했다.

방충망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올해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싶

어도 별래 때문에 힘들었는데 방충망 설치 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동 위원장인 김학성 읍장은 "일상생활 중 작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읍은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을 통해 방충망 외에도 전등 및 가스레인지 교체 등 다양한 생활불편 해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신중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시작

순창군이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신중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대상자는 농부, 군인 등 직업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이 대상이며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은 8월 1일부터 실시하며 기존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분증을지참해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을 방문하거나 해당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면 되며 우선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접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은 1개월 간격으로 2회 기본접종 후 12개월 뒤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신중후군출혈열이란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며 초기에는 감기подоб 증상을 보이다 고열, 구토, 복통, 출혈 등 전신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전신에 출혈성 반점과 신장 기능 저하로 신부전증에 빠질 수 있다. 가을철 야외 농사일을 많이 하는 농민들은 꼭 접종이 필요하다.

순창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폭염에 건설공사 일시정지

순창군은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7일까지 군이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했다.

연일 35~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교체 인부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 등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군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폭염에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9호)'에 의거 공사의 안전을 위해 실외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 무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일시정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장보다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우선이다"라며 "이번 폭염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와 현장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원예허브과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돈 버는 농업 실현의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돈 버는 농업실현 '청신호'

시설원예작물 작목반 간담회서 농업인 의견 수렴

남원시 원예허브과는 오는 8월 초까지 시설원예 주요 품목에 대해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돈 버는 농업실현의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참여형 예산 편성을 위한 현장의견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는 딸기, 상추, 오이, 파프리카 등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작물에 대한 농업기술 공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원예산업 조수입 2,000억 달성을 위한 시설원예 주요 재배현황

분석과 육성방안 설명 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기간동안 한낮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간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남원시 이강조 원예허브과장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건의, 신규사업 발굴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향후에도 현장 간담회를 계속 이어 나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